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9. 4.(수요일) 총 8매(본문4, 참고4)	
담당부서	철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현정, 사무관 허원석, 주무관 안남현 • ☎ (044) 201-3938, 3949, 4642
보도일시		2019년 9월 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4(수) 18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9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개최 -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 내딛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8.9.19.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「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(East Asia Railway Community Initiative International Seminar)」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9월 4일(수) 14시에 개최하였다.
 -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으로, 한국·북한·중국·러시아·몽골·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이다.
- 그간 정부는 국제철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왔다.
 -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,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('18.9), ASEM 정상회의('18.10), G20 정상회의('18.11), 오슬로포럼('19.6) 등에서 설립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.

- 국토교통부는 한-중 철도협력회의('19.5, '18.9), 동방경제포럼('18.9), 국제교통포럼('18.11), 한-러 교통차관회의('19.6) 등을 통해 관련 국에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으며, 그 결과 중국, 러시아, 몽골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을 확인하였다.
 - 아울러, 작년 6월 북한을 포함한 28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(이하 OSJD)에 가입하였으며, 이를 계기로 금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, 금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였다.
 - 또한, 그간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,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경제·교통·외교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.
-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 참여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첫 공식 국제세미나로서 의미가 크다.
-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, 바트볼드 산다크도르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, 옌허시양 중국 국가철로국 총공정사 등 대상국 정부 관계자 및 일본 ERINA(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), 중국 요녕대학교, 세계은행(World Bank) 및 GTI(Great Tuman Initiative) 등 각 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.
 -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몽골, 러시아, 중국 정부대표가 축사,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민간포럼 대표가 기조 연설을 하고,
 - 세계은행 철도솔루션팀 리더인 마사 로렌스가 지역 통합과 철도 물류의 역할을,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박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안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제하였다.

- 패널토론에서는 엄구호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9명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(참고 1 행사개요 참조)
- 세계은행의 마사 로렌스는 중국-유럽 간 블록트레인 연결, 중앙아시아 철도회랑을 통한 지역 간 협력, TEN-T(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) 등의 사례를 통해 철도협력이 지역통합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,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또한, 세계은행은 이번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에 철도 및 인프라 분야 전문가 두 명이 참석하는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.
-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의 기존 철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물류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4개 최적 철도노선을 분석·제시하는 한편,
 - 각 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물류협력사업을 검토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연계될 철도건설사업, 경제특구, 물류, 관광,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개 경제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.
(참고 2 한국개발연구원 발제 주요내용 참조)
 - 이를 통해 각 참여대상국은 운송비 절감에 따른 교역량 및 소득 증가, 활발한 교류에 따른 시장 확대, 연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또한, 공동체 참여국의 국가총생산량(GDP)은 39.6조 달러로 세계 GDP의 49.8%에 달하며, 인구는 21.1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

27.4%를 차지하고, 7개 참여국 간 교역비중도 각 국별 총 교역량의 25~89%로 매우 활발한 수준임을 설명하면서,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.

- 아울러,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으로서 2020년 민간국제포럼 설립, 2021년 정부 간 협의체 구성, 2023년 말까지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청사진도 제안하였다.

□ 김경욱 차관은 “이번 세미나는 9.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개최하는 것으로,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설립 이행방안을 공동체 참여국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대외에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공식 국제행사로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출발점”이라며,

- “오늘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,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,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9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GICC 동시개최

The East Asia Railway Community Initiative
International Seminar

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

2019년 9월 4일 (수) 14:00 ~ 17:30
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 볼룸 II, III

초대의 글

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한국, 북한, 중국, 러시아, 몽골,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력기구로서, 동아시아 평화 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을 이행하는 협력체입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DI와 함께 경제, 교통, 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구진을 구성하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국정부대표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동안 마련해 온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. 이러한 논의의 시간이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다자간 평화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.

행사개요

일시 | 2019.09.04 (수) 14:00 ~ 17:30

장소 |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 II,III

주최 |  국토교통부 주관 |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개발연구원

후원 |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한국철도공사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

등록안내

현장 등록으로 등록비는 무료입니다. (명함 지참 요망)

프로그램

14:00 - 15:00		
개회식		
개회사	김경욱	국토교통부 제2차관
축사	Enkh-amgalan Byambasuren (Mongolia)	몽골 도로교통부 장관
	Vladimir Tokarev (Russia)	러시아 교통부 차관
	Hexiang Yan (China)	중국 국가철로국 총공정사
	김상균	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
기조연설	김세호	동아시아철도공동체민간포럼 대표 (전)국토교통부 차관
15:00 - 15:40		
기조 세션		
기조발제	지역 통합: 철도 물류의 역할 Martha Lawrence 세계은행(World Bank), 철도 솔루션팀 리더	
기조발제	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수립과 추진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(KDI)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	
15:40 - 17:20		
패널 토론		
좌장	엄구호	한양대 러시아학과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
토론자	Bernard Aritua	세계은행(World Bank) 선임 인프라 전문가
	Byamba-Yu Artur (Mongolia)	몽골도로교통부 철도정책국장
	Dongming Zhang (China)	요녕대학교 교수
	Hirofumi Arai (Japan)	동북아경제연구소(ERINA) 연구 분과 분과장 겸 선임 연구원
	Qiming Wang (China)	중국 국가철로국 주임
	Tuguldur Baajikhuu	광역두만강개발계획(GTI) 사무국장
Vladimir Trofimchuk (Russia)	러시아 교통부 차관 보좌관	
이재훈	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	
김헌정	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과장	

*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.



*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하철 이용

-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도보 5분
-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도보 10분

버스 이용

- 무역센터, 봉은사, 코엑스 북문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
- 간선버스(파랑색 버스)
146, 301, 401, 342, 362
- 지선버스(초록색 버스)
2415, 3217, 3411, 3412, 3414, 4318

참고 2

한국개발연구원(KDI) 주요 발제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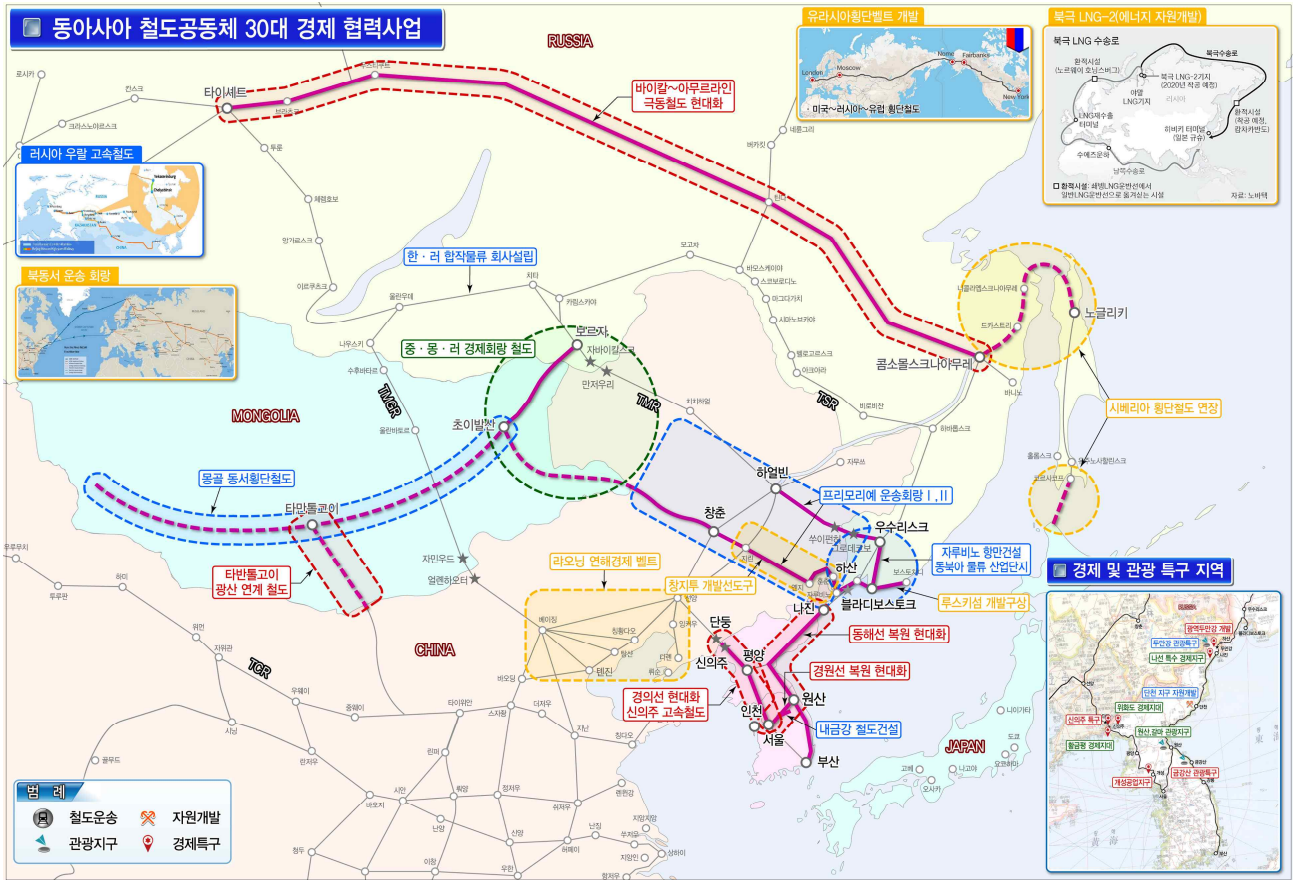
□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개념



□ 최적 철도사업노선



동아시아철도공동체 30대 철도 연계 경험사업



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이행 로드맵(案)

